



기자수첩

### 경기도광명시새마을회 논란

경기도광명시새마을회를 둘러싼 이번 사건의 논란은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공공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비영리 봉사단체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엄중해 보인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법적·사회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1. '포대 같이'를 통한 원산지 위반 의혹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른바 일명 '포대 같이' 생산자 표시가 없는 소금이나 타 지역(영광 등)의 소금을 '신안 천일염' 포대에 담아 유통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을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표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정직한 신안 천일염 생산자들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 이력을 알 수 없는 식품을 공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구관사업의 회계 불투명성 및 지침 위반  
새마을중앙회의 '그린일 구관사업 지침'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 정식 절차를 무시한 매입·판매는 횡령이나 배임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판매의 계속성과 수익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광명시새마을회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봉사 사업(나무심기, 김장 등)과 위탁 사업인 '빛 축제'까지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단체 전반의 투명성에 금이 갔음을 의미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광명시청의 관리·감독 부실성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이 무색하게도, 이번 사건은 일부 운영진

의 사익 추구 또는 도덕적 해이가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부 회원들이 직접 반발하고 나선 만큼, 단순히 내부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단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지만, 불법 유통된 소금은 단체의 신뢰를 썩게 만듭니다."

### 독자투고

### "겨울철 화목보일러,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집니다"

진도소방서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화목보일러는 구조상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기 전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져도 주변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다.

또 실제로 매년 겨울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들이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첫째, 사용 전 점검하기다.  
보일러와 연통에 녹이 슬었거나 틈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만 살펴봐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둘째, 연통 관리하기다. 그늘음은 금방

쌓이기 때문에 가끔씩 청소하고, 필요하면 수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연통이 지나가는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 두면 더 안전하다.  
셋째, 장작 투입 후 덮개 닫기다. 장작을 넣은 뒤에는 덮개를 꼭 닫아 불티가 밖으로 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일러 주변 정리하기다. 종이, 목재, 비닐 같은 가연물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을 조금만 비

위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다섯째, 재 안전하게 처리하기다. 겉보기엔 식은 것 같아도 속에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재는 뚜껑 있는 금속통처럼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식혀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내 집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노은서

## 기고

### "치킨벨트가 움직이는 지금 여수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존 4곳이던 K-미식벨트를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치킨벨트 1곳과 함께 추가 미식벨트 1곳을 선정하는 일정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 익산시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월 15일 송미령 장관을 직접 만나 익산을 '치킨벨트 모델도시'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건의했고, 허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기존 산업 기반을 앞세워 정부 공모를 사실상 선점하려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수의 태도입니다.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문화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K-미식벨트와 관련한 공식적인 대응이나 전략이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공모는 '준비된 도시'를 찾는 과정입니다. 준비 없이 결과만 기다리는 도시는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여수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갓김치'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며, 이미 관광 자산으로 자리 잡은 '계장거리'라는 확실한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치벨트의 확장 모델로서 여수의 갓김치, 또는 지역 상권과 관광이 결합된 계장거리는 정부가 지향하는 '식(食)과 관광의 결합'이라는 K-미식벨트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속도입니다.  
익산이 치킨이라는 주제로 선제적 메시지를 던졌다면, 여수는 김치 또는 해산물이라는 고유한 강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정책 언어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여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분명한 의지와 방향입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께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정부의 K-미식벨트 추가 공모가 본격화되기 전에, 여수시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공식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벨트든, 여수형 미식벨트든, 여수의 식문화가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 제안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은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먼저 손을 드는 도시의 편에 섭니다. 여수가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도시가 아니라, 식도락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이광일

###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음력 12월 11일)

<p><b>48년생</b> 숨기고 아끼는 살림이 되어보자. 60년생 보람과 성취감 하늘 높이 날아보자. 72년생 미리 하는 준비에 마음 출려보자. 84년생 기치 있는 희생조각이 우선이다. 96년생 행방했던 긴장은 느슨히 풀려간다.</p>	<p><b>49년생</b> 선분은 기대감껏국을 마셔야 한다. 61년생 꿈꾸고 도전하는 청춘을 가져보자. 73년생 용기 있는 변화과거를 지워보자. 85년생 서열 무시하고 앞으로 나서보자. 97년생 앞돌모를 두 손재의 밑에 맡아보자.</p>	<p><b>50년생</b> 허름하고 낡은 추억을 꺼내보자. 62년생 첫 술에 배부르라면 곳을 봐야 한다. 74년생 약속은 흠이 되고 의리는 도망간다. 86년생 모난 데가 없다. 칭찬을 들어보자. 98년생 밀천은 정준다. 호기를 부려보자.</p>
<p><b>51년생</b> 생각은 복잡해도 처음을 지켜보자. 63년생 어지간히 좋아도 표정관리 해보자. 75년생 내심 불안함은 시간이 가져간다. 87년생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기운이져. 99년생 영영이 되려는 욕심 회를 자초한다.</p>	<p><b>52년생</b> 소극적인 대응 약자가 되어보자. 64년생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보자. 76년생 다디게 가는 행보 배움을 가져보자. 88년생 얼굴 색한 해지는 소식을 들어보자. 00년생 기쁨을 감춰 놓는 기회가 잡혀간다.</p>	<p><b>53년생</b> 달리는 부타 공한쪽도 내뉘보자. 65년생 저조한 성적표 손들고 반성하자. 77년생 회초리 맞았던 공부 빛을 밝혀준다. 89년생 세상을 얻은 듯한 감동에 빠져보자. 01년생 재미없는 공부 지루함과 맞서보자.</p>
<p><b>54년생</b> 주먹이 울어도 찰는 법을 배워보자. 66년생 새것이 아니라도 만족해야 한다. 78년생 고생끝행복 시작 꽃길을 걸어보자. 90년생 겁없는 도전수업을 내야 한다. 02년생 행방 소란 뒤에 웃음이 다시 온다.</p>	<p><b>55년생</b> 깨알같은 간성 술석 잔을 받아보자. 67년생 가슴이 고인을 밖으로 꺼내보자. 79년생 천천히 느끼며 목표를 향해 가자. 91년생 격려박수에 보란듯이 답해보자. 03년생 갈해보자. 04년생 갈해보자.</p>	<p><b>56년생</b> 어색한 화해 먼저 손을 잡아보자. 68년생 요리한 먹거리 입이 호신한다. 80년생 격해지는 분위기 심표를 짊어보자. 92년생 거대한 흥청눈이를 아래로 하자. 04년생 서러운 눈물은 아이기로 남겨진다.</p>
<p><b>57년생</b> 미움도 경이다. 품으로 안아보자. 69년생 불면함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자. 81년생 행운의 주인공 만능이 불려진다. 93년생 열심히하는 모습 기호가 되어준다. 05년생 위기가 기회다. 슬기롭게 넘겨서자.</p>	<p><b>58년생</b> 관객 찾은 광부 만세가 불려진다. 70년생 호인장담 큰소리 길을 잃을 수 있다. 82년생 자존심도 체면도 땅에 묻어보자. 94년생 깎기되기 위험한 과정을 거쳐보자. 06년생 용감하지 못하면 기회는 달아난다.</p>	<p><b>59년생</b> 날아갈 듯 가볍게 부름에 나서보자. 71년생 아쉬웠던 부분은 백국히 채워진다. 83년생 죽이 맞는 짝꿍 어깨동무 해보자. 95년생 마냥기 불수없는 축히를 받아보자. 07년생 내부에 적이 있다. 말을 아껴보자.</p>

##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0원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